

문화

행복한 책임기

클로티르 구이크프리트의 '고마워하지 않을래'

흔히 사춘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는 말 그대로 뇌가 소용돌이치는 때라는 것이다. 그만큼 사춘기는 혼란스럽고 힘겨운 시기다. 생각이 부쩍 자라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춘기를 가리켜 힘겨운 시기라고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춘기는 생애 있어서 과도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

폴스 파이터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춘기로부터의 일시적 휴식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춘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가장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때

한 시실에서 살면서 주말이나 방학 때만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태도에 게 찾아온 혼란은 동생인 빅토르보다 '고맙다' '부탁인데-'라는 말을 더 많이 해야 하는 불평등이다.

불만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서 태오는 되도록 '고맙다'는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고맙다'는 말을 수첩에 기록하기로 한다. 심리 선생님과 상담 뒤 갖게 된 스포츠 답당 파 트리스 선생님과 의 후속한 탁구 훈련은 그 시작이다.



'도와주기'와 '도움받기'

지난 사춘기는 그래도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다.

미국의 청춘배우 제임스 딘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라고 말했다.

또한 헬렌 켈러는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던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사춘기는 무언가에 미쳐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사춘기는 장애인이자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상인보다 아픔이나 좌절이 더 깊고 크겠지만 그들도 사춘기는 겪는다. 하지만 정상인이라 해도 누구든 마음의 장애는 하나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춘기는 생애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다.' 라는 말이 있다. '고마워하지 않을래'의 태오는 두 다리과 한 쪽 팔을 잘 쓰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다. 때문에 10년 넘게 휠체어를 타고 생활했고 가족을 떠나 장애인을 위

자학년 아이들을 돕고 농구팀을 위해 수건을 정리하고 새로운 친구 피에르에게 자신감을 찾도록 하고 듣게 된 '고맙다'는 말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부터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결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오에게 아빠는 말한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란다."라고 말이다.

울진이 최정수는 후기에 장애인을 도와주기만 하는 게 불공평하다면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다.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해인 수녀님은 "살아있는 동안 꼭 알아야 할 하나의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했다. 시인 황지우도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다.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아트광주12 참여 대안공간

국내	창원
대안공간마루	광주
대안예술시장	서울
브레인팩토리	서울
프로젝트스페이스 사투비이다방	서울
콘스트독	서울
더프라이스	서울
스페이스15th	서울
해외	
AND Media Festival	맨체스터
Animate Projects	런던
Arnolfini	브리스틀
Beijing Art Academy	베이징
Castlefield Gallery	맨체스터
Chinese Arts Centre	런던
Enclave	런던
Guangxi Arts Institute	난닝
Tina B.	프라하



강세욱 작 '물과 아이'



임수식 작 '책가도'



윤정원 작 '인형박스'

뭔가 다르다! 대안공간 작품 광주에 모인다

상업 갤러리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돈 없고, 이름 없는, 비상업적인 젊은 작가들의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대안 예술 공간들이 광주에 모인다.

'아트광주 12'(9월 5일~9일) 기간 마련된 '뮤지엄 아울렛' 전은 많은 작가들, 넓은 미술계에서 상업 갤러리의 '매관한' 그림들과 사투 다른 실험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흔히 많은 기회이기도 하다. 작품을 사고 파는 '아트페어'인 만큼 미래 주류 예술가로 떠오를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올해 '아트광주 12'에 참여하는 비영리·대안공간은 모두 16곳으로, 국내에서는 프로젝트스페이스 사투비이다방, 콘스트독(서울), 대안공간 마루(창원) 등 7곳과 영국 런던의 'Animate project' 등 9곳이다.

'프로젝트스페이스 사투비이다방'

은 미술을 중심으로 건축·음악·무용·필름 등을 포괄하는 실험적 예술을 지원하는 비영리 갤러리로, 1970~80년대 화가나 문인들이 집결하는 장소였던 옛 사투비이다방을 인수해 설립됐다.

사투비이다방은 이번 행사에 운영원 작가의 비비인형과 미완의 재료를 활용한 콜라주 작품을 선보인다. LED 조명을 배경으로 한 10여개의 인형 상자가 전시공간 벽면을 채우고, 패션쇼를 하는 듯한 인형들 수백개를 상층리에처럼 천정에 매달아놓은 높이 1m짜리 대형 설치작품 '인형꽃'이 화려하게 전시장을 밝힌다.

대안공간 마루의 경우 김학일씨와 정동근씨의 작품으로 관람객들과 만난다. 한지에 몇 방울 떨어진 검은 먹빛을 담은 김씨의 '자연(自然)-감(感)'이라는 작품은 고요함과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다.

9월5~9일 '아트광주12' 독창적 작품 눈길

비영리·대안공간, 국내 7곳·해외 9곳 참여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인 '한 평 갤러리'를 통해 작품 활동을 했던 이 조흥·김택현·주대희 씨 등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이 조흥씨의 경우 자신의 뒤통수와 동서양인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신작 '소설-raining'을 선보인다.

그는 전통적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스머프·스핀지밥·아바타 등 팝아트 소재인 만화·영화 캐릭터들을 등장시키는가 하면, '장르 해체'와 '퓨전'을 내걸고 다양한 영역의 창작 활동을 해왔다.

이의 수록의 단아함으로 동심의 세계를 화폭에 담고 있는 한국화가 주

대회씨의 작품도 손길이 간다. 미술 애호가들과 달리, 일반인들에게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미디어 아트 작품도 서울 대안공간인 브레인팩토리를 통해 전시, 판매된다.

신세계미술제(2007)·하정웅청년작가(2009)·광주미술상(2011) 등을 수상한 진시영 작가의 전통적 회화와 첨단 디지털 매체의 효과를 살린 작품 '흐름(Flow)' 시리즈가 선보인다.

해외에서도 실험적이면서 사회성이 강한 작품들이 비영리 공간인 AMD Media Festival과 Castlefield Gallery 등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국제개발기구인 체인 더 프라이스가 내놓는 작품도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예술과 기부 문화를 연결하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라미스는 이번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팔아 미안마와 동티모르 등을 위한 교육사업에 쓴다.

나무시리즈로 유명한 이명호씨, 환경사진작가 강세욱씨, 철학적 주제를 발랄하게 담아내는 심아빈씨, 책가도(冊架圖)를 재해석하는 임수식씨, 현대인의 모습을 희화한 변경수씨의 작품 등은 놓치지 마라.

/김대성기자 dok2000@kwangju.co.kr

인권·정의·평화... 5·18 민주화운동의 기록들

기념재단, 5월문학총서 시·소설 부문 발간

5·18 광주기록물의 유네스코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5월문학총서 1차분 시·소설 부문 2권이 먼저 나왔다.

5·18기념재단은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시와 소설 작품을 가려 뽑아 엮은 5월문학총서를 발간하고 30일 오후 6시30분 5·18기념문화관 대동홀(2층)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재단 창립 18주년 기념일에 맞춰 열린다.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전 4권 분량으로 5월문학총서 발간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시와 소설부문이 먼저 출간됐고 희곡(시나리오·마당극·관소리 포함)과 평론 부문은 내년 초 선보일 계획이다.

시 부문은 고은·문병란·신경림·민영·정희성·이시영 등 총 169명의 시인이 쓴 208편의 시가 실렸다. 5·18

에 대한 시편들 중 시기별로 항쟁의 진실과 기억의 현재성, 인간해방과 민주주의의 실천 등 참다운 오월정신을 계승하는 시 등 총 5부로 나눠 엮었다.

소설 역시 80년 오월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비평적 시각에서 쓴 40여편의 작품 중에 엄선해 13편을 골랐다. 송기숙, 윤정모, 홍희담, 임철우 등 13명 작가의 중·단편소설로 하나같이 당대의 감수성을 놓치지 않고



강형철(평론), 전용호(희곡·시나리오) 작가가 책임편집위원으로 합류했다.

고은 시인은 총서의 책머리를 통해 "이제 5·18은 30년을 넘어섰다. 그러나 오월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에 오는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빛나는 모국어'를 보여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썼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내년 5월문학총서 희곡과 평론 부문이 출간 완료되면 이를 5·18민주화운동 교육용도서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작가들의 유필원고 등을 유네스코기록물과 함께 아카이브센터를 통해 공개하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